

# 한국연초학회의 현실과 당면과제

이 영 근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회지 등재 수준별 8개 학회의 현황을 연초학회와 비교하고, 한국연초학회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등급과 소속 정회원의 수·년간 예산 총액·학회지 발간회수 및 논문발표 건수는 대체로 정비례하는 경향이였다. 한국연초학회에 등록된 정회원은 371명으로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원 수에 비하여 1/10-1/2 수준에 불과하였다. SCI급 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의 예산총액은 4-5억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의 예산은 1억원 내외였다. 한국연초학회는 최근 예산액이 계속 감소하여 3,000만원에도 미달하였다.

조사 대상 학회는 모두 영문학회지와 국문학회지를 합하여 연간 6-10회 발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연초학회는 국문지만 년 2회 발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회들이 연간 100-1,800건의 학술연구결과를 포스타를 이용하고 발표하고 있었으며, 일부 학회에서는 소수의 우수논문을 구두발표를 하여 포스타 발표과 병행하고 있었다. 한국연초학회는 2002년부터 일반학술발표 방법을 구두발표에서 포스타 발표로 전환하였으나, 그 결과 연간 발표건수가 2001년의 20건에서 2002년에는 15건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연초학회를 제외한 조사대상의 모든 학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홍보와 회원 사이의 정보교환·학회 논문 투고와 심사·Cyber/DB출판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객관적 학술지 평가 기준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연초학회지는 학술지 지령과 투고 및 심사규정 유무, 논문 편 당 심사위원 수, 정시발행 여부, ISSN 획득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9개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학회의 규모와 학회원들의 투고 논문 수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후에야 학술지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연초학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수익사업 개발과 운영을 전담할 사업간사를 신설하고, 연초경작연구위원회와 담배제조연구위원회를 연구회로 전환하는 대신 학회

발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학회발전위원회에서 회원 증대방안·학회지 투고 논문 증대방안 등 학회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들을 연구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앙연구원의 논문게재 장려 시책과 학회원들의 참여의식 고취도 학회의 투고논문 수 증가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중앙연구원이 연초관련 기관·대학·연구소·산업체의 인사들과 공동연구·용역연구 발주·겸직 연구원 및 전문위원으로의 발령 등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연관계가 회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용역연구나 공동연구의 결과물을 연초학회에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